

‘바르사 유스’ 대한·민국 탄생 배경… 체육인 가족의 조력

‘스페인 명문’ 바르사 입단한 이대한·이민국
축구인 아버지·태권도 선수 출신 어머니
‘축구 유망주’ 형 이청용 도움도 많이 받아

“가족들 덕분입니다.”
최근 스페인 ‘명가’ FC바르셀로나 유스
에 입단한 ‘쌍둥이 기대주’ 이대한, 이민국
(이상 14)은 낯선 스페인 땅에 뿌리를 내
릴 수 있었던 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 이청용의 조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대한과 이민국은 지난 27일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뉴시스와 진행
한 단독 인터뷰에서 남다른 가족 사랑을
뽐냈다.
스페인 에스파뇰 유스팀에서 활약했던
이들은 재능을 인정받아 최근 바르셀로나
유스팀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미성년자는 프로 계약을 할 수 없어
14~15세 연령대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바
르셀로나 카데테B에서 재능을 꽃피운 후,
2년 뒤 프로 계약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대한, 이민국은 지난 2016년 스페인
의 유명 도시인 바르셀로나로 축구 유학
을 떠났다.
국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외국으로 진출
했던 다른 해외파들과 달리, 축구 자체를
유럽에서 시작했다.
에스파뇰 산하 유소년 취미반에서 처음
축구를 접한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본격
적으로 전문 선수의 길을 걸었다.
환경도, 언어도 달랐지만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럽에 진출
했고, 재능 역시 뛰어났던 만큼 빠르게 스
페인 축구에 녹아들었다. 이대한과 이민국

은 한목소리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 이
청용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청용도 축구 선수다. 현재 다음 시즌
부터 스페인 레알 베티스 산하 팀이 될 산
가브리엘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대한, 이민국은 “형도 축구 선수니까,
우리가 스페인 생활과 선수로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또 선배로서 우리
의 장단점에 대해 조언도 해주며 성장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기대주’와 ‘형’ 이청용이 축구
선수로서 남다른 재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체육인 부모님을 둔 덕이라고 볼 수 있
다.
아버지 이정욱 씨는 축구인이고, 어머
니 구자현 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이정욱 씨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했고, 구자현 씨는 아이
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생활하면서 축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정욱 씨는 “낯선 스페인으로 보내는
건 쉽지 않았으나, 아이들이 원했다. 또
(축구 선수로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경험,
언어적인 요소 등을 많이 하면 더 넓은 시
야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봤다”고 유학
배경을 말했다.
이어 “쉽진 않았다. 대한이, 민국이처럼
어린 나이에 떠난 사례가 없었기에 한국
이든 스페인이든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며 “다행히 아이들이 잘 적응했고,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한 쌍둥이 형제 이대한(왼쪽), 이민국이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형 이청용(가운데) 군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도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
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세
계적인 구단 소속이 됐지만, 프로가 되기
위해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
에게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며 “다행히 아이들이 (이 수준에 안도하기
보단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
라”고 전했다.
구자현 씨는 “축구 교실을 하는 남편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 선생님보단 아빠로 남고 싶
다’고 했다”며 “낯선 도전이었지만, 시작
부터 좋았다. 유학이라는 게 선수 생활 시
작 전에 거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집

주인부터 좋았다. (아이들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수 있었던 건)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이라며 겸손했다.
프로로 성장하기 위해 이대한, 이민국
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들이 프로가 될 수 있게 더 힘을 보태줬다
는 의지를 태운 이정욱 씨와 구자현 씨다.
그는 “남편에게 ‘2년만 더 고생하자’고
했다. 유스로서는 세계적인 수준까지 닿았
지만 아직 프로가 된 게 아니니, 아이들이
프로 계약할 때까지 더 고생하자는 의미”
라며 “또 쌍둥이가 한 팀에서 뛰니 성장하
는 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원팀으로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폭염에 낙뢰 빈번’… 1년 뒤 북중미월드컵 최대 변수로
미국 개최 클럽월드컵서 낙뢰로 지연 발생
30도 중반 웃도는 무더위도 경기력에 영향

프로축구 울산 HD가 조별리그
전패로 탈락한 2025 국제축구연맹
(FIFA) 클럽월드컵은 내년 북중미월
드컵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무
대였다. 미국에서 개최된 대회 조별리
그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참가국
들을 가장 괴롭힌 변수로는 ‘날씨’가
꼽힌다.
이번 대회는 약천후로 여러 차례
경기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축구는
폭우와 폭설로 경기가 지연되는 사례
를 찾기 힘든 종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클럽월드컵은 낙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울산도 피해를 본 팀 중 하나였다.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
앤코 스타디움에서 킥오프를 기다리
던 울산과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
리카공화국) 선수들은 인근 낙뢰로 다
시 라커룸에 들어가 대기해야 했다.
결국 이 경기 킥오프는 65분간 미
뤄졌다.
미국에선 8마일(12.9km) 낙뢰 규정
에 따라 야외 스포츠 활동 시 8마일
내 낙뢰가 확인되면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이후 30
분기량 낙뢰가 없어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그 사이 낙뢰가 또 확인되면
다시 3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경기 지연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파
추카(멕시코)와 잘츠부르크(오스트리
아)전은 1시간37분, 오클랜드 시티
(뉴질랜드)와 벤페카(포르투갈)의 경

기는 2시간 넘게 지연됐다.
미국에선 이 시기에 낙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1년 뒤 2026 북중미
월드컵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
성이 높아 참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
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별리그를 미국에서 치른다
면, 해당 대표팀은 경기 지연과 중단
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 기상청(NWS)에 따르면 2015
년부터 올해까지 낙뢰 사망자는 200
명이 넘는다.
경기 지연은 선수뿐 아니라 관중 입
장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다. 먼 거리
를 이동해야 하는 북중미월드컵 특성
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들을 괴롭히는 폭염도 변수다.
미국 동부 지역엔 30도 중반을 웃
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으나, 클럽월드
컵 일부 경기 킥오프 시간이 정오나
오후 3시로 배정됐다.
FIFA가 유럽의 황금 시간대에 경
기 시간을 맞추려 한 것인데, 클럽월
드컵 참가국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
리가 쏟아졌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
드)의 펠 그라디울라 감독은 “이번 대
회를 보려면 물과 모자, 수건을 만드
시 쟁겨야 한다”며 미국의 무더위에
혀를 내둘렀다.
내년 월드컵 출전국 입장에서선 상대
적으로 시원한 캐나다, 멕시코로 경기
가 배정되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뉴시스

기성용이 처음 아니다… FC서울을 떠난 레전드들

포항 이적 앞둔 ‘서울 전설 미드필더’ 기성용
앞서 서울은 박주영·오스마르 등 농친 경험
서울 팬들은 “레전드 못 지킨다” 뿔난 반응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출신 미드필
더 기성용(36)이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을 떠나 포항스틸러스 이적을 앞둔
가운데, 서울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
지 못했던 전설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
다.
28일 축구계에 따르면 기성용은 포
항 이적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지난 25일 “포랜차이즈 스타
이자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의 인연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며 기성용과의
결별을 알렸다. 선수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서울
을 떠난다고 밝혔다.
1989년생으로 은퇴를 앞둔 시기지만
경기장에서 더 뛰고 싶은 기성용과 기
동력이 예전만 못한 기성용을 쓰지 않
기로 결정한 김기동 서울 감독의 상황
이 맞물리면서 이번 이적이 성사됐다.
축구계에서 흔히 있는 이적 과정이
지만, ‘기성용=서울’로 통하는 K리그 무
대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A매치 110경기(10골) 소화하며 월
드컵 본선 3회(2010, 2014, 2018년)를
뒀 기성용은 셀틱(스코틀랜드), 스완지
시티, 뉴캐슬(이상 잉글랜드), 마요르카
(스페인) 등 유럽 생활을 제외하고 국내
에서는 FC서울 한 팀에서만 올레까지
10시즌째 몸담았다.
K리그 통산 198경기에서 작성한 14
골 19도움에 오로지 서울 유니폼을 입
고 달성한 기록이었다.
리그 내 다른 팀 팬들도 기성용은 서
울, 서울은 기성용으로 이해할 만큼 팀
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기
성용이 선수 말년에 포항으로 이적하는
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서울 팬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서울 구단과 김 감독을 강도 높
게 비판하는 건 물론, 서울의 모기업인
GS그룹 본사에 트러시위를 벌이고, 서
울 훈련장인 경기도 구리 GS챔피언스
파크에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이 이런 행보를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다.
과거 서울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공격수였던 박주영은 기성용처럼 유럽
생활을 마친 이후 서울로 돌아왔지만,
더 뛰고 싶다는 이유로 울산 HD로 등지
를 옮겼다.
그리고 현재 울산에서 코치로 제2의
축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성용과 함께 서울의 2000년대 후
반 부흥을 책임졌던 이청용은 유럽 생
활을 마친 이후 서울이 아닌 울산 유니
폼을 입기도 했다.
국내 선수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역사상 손에 꼽히는 외국인 선
수인 ‘공격수’ 데얀은 라이벌 수원 삼성
으로 이적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 구단 최초의 외국인 주장이였
던 미드필더 오스마르는 서울을 떠나
현재 K리그2 서울이랜드에서 뛰고 있
다.
이에 서울 팬들은 “서울은 레전드들

을 지키지 못한다”, “아름다운 이별이라
는 이름으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서울”,
“고요한만 서울에서 은퇴했네” 등 팀의
전설적인 선수들을 지키지 못하는 구단
행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은 최근 성명
서를 통해 응원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다.
수호신 측은 “구단과 김 감독이 침묵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며 오는 29일 예정된 포항전부터 응원
을 펼치지 않을 거로 예고했다.
한편 ‘기성용 데바’가 된 이번 서울과
포항의 경기에는 기성용이 출전하지 않
는다. 이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포항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서류
작업은 끝났으나, 메디컬 테스트를 받
아야 한다”며 “기성용은 내달 3일 오전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이상 없으면 오
피셜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시공 (주)한화/건설

시공 HDC현대산업개발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